

제312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제489호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2. 제2021-12호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실천 계획 3. 제2021-13호 2021년 가을 EBS 편성 조정 현황 4. 제2021-14호 2021년 8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사장 김명중		
일시 및 장소	2021. 8 26.(목) 15:01~16:49,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9명	결석 인원	없음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김양은 이사, 김진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이사		
회의 결과	1. 제489호 : 공개, 원안 의결 2. 제2021-12호 : 공개, 청취 접수 3. 제2021-13호 : 공개, 청취 접수 4. 제2021-14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21년 9월 9일

이사장 유 시 춘

이 사 김 양 은

이 사 문 종 대

이 사 선 동 규

이 사 장 옥 님

이 사 김 진

이 사 박 강 호

이 사 이 영 한

이 사 정 동 섭

제 312 회

이 사 회

- ◆ 일 시 : 2021년 8월 26일(목) 15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회 순

I. 개회	1
II. 인사	2
III. 전차 의사록 확인	4
IV. 상정안건	5
<의결안건>	
제489호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6
<보고안건>	
제2021-12호 :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실천 계획	17
제2021-13호 : 2021년 가을 EBS 편성 조정 현황	32
제2021-14호 : 8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42
V. 폐회	44

(開會 : 15時 01分)

I . 開 會

○ 議長 유시춘

김혜영 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실까요?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 분 전원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한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종풍 위원장, 김무성 사무처장, 김경민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입니다.

○ 議長 유시춘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1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II. 人 事

○ 議長 유시춘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이사회하고 지난주 이사회 간담회를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황이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만 안전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고려해서 대면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님들, 그리고 사장님과 EBS 가족들 모두 이 엄중한 상황에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17일부터 초중고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혼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EBS의 원격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30일로 첫 방송이 예고되어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레이트 마인즈 <위대한 수업>이 첫 방송 3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고방송이 세 번 나왔습니다만 아직 기사에는 그리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지만 여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희의 이 새로운 기획 <그레이트 마인즈>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고방송 나간 직후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몇 개 기사를 쓰고 또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면 EBS를 지지하고 칭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교육강국과 지식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EBS가 기여해 주리라 믿습니다. 또 EBS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확실히 천명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놀라운 섭외력과 기획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실무자 여러분께 무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312회 이사회 상정안건은 의결안건 한 건과 보고안건 세 건입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은 지난주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간담회에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우리 모두 공유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명중 사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의 방송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한 1시간 반 이상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이 분야의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한국인들에 대한 세계 석학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세세하게 잘 준비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수상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Design Award인 ‘Red Dot Design’, 독일에 있습니다.

Red Dot Design에서 EBS가 메타버스 전시 ‘보이스’라는 그런 작품을 출품해서 Red Dot Award ‘위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시는 디지털 가상 갤러리에서 7명의 아티스트와 예술을 함께 경험하고 문화예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EBS가 오프라인 세트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한 가상공간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큰 성과입니다.

이사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조치를 유지하는 중에 저희가 2학기 개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BS는 전면 온라인 계약 및 원격수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상상황실 외에도 외부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기술상황실을 바로 이 옆에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부 회사의 전문가들도 함께 즉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방금 주문하신 것처럼 원격교육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 실천계획 및 8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前次 議事錄 確認

○ 議長 유시춘

그럼 지난 7월 15일 개최된 제311회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하고 접수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송부해 드린 전자 회의록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의나 수정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理事들 “예.”]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제311회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IV. 上程案件

○ 議長 유시춘

다음은 회의 공개 여부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489호 의결안건과 제2021-12호, 2021-13호, 2012-14호 세 보고안건은 규정에 따라 공개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決案件〉

【 第489號：職制規程 一部 改正(案) 】

○ 議長 유시준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三打))

정책기획센터장, 상정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정책기획센터장입니다.

(p)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코자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 론칭과 또한 기타사업들의 론칭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 충원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원 T/O 대비 현원 비율이 증가해 정원의 여유분이 현저히 축소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 평생교육 영역 강화, 글로벌 지식 플랫폼 구축, 전략적 IP 개발 등 미래 전략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는 정원 T/O를 서류상 50명 확대하는 것으로 신규인력 50명을 바로 채용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중기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인력들을 전망 및 산정한 결과, 일반직 정원을 648명에서 698명으로 5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임원 3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현 정원 T/O 651명에서 701명으로 증원하는 안입니다.

이러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인력 T/O는 규정상 직제규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p)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제규정에는 제8조 ②항에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고 표시하여 <별표 1>에서 저희의 정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p)7입니다.

<별표 1>의 정원표를 보시면 중간에 별정직·일반직 현행에 648명 이 부분을 우측의 개정

안에 698명으로 50명 증원하는 것이고, 임원 3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51명에서 701명으로 증원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사님들 테이블에 놓여있는 별첨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이사회 간담회 때 상세설명을 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설명드리지는 것은 생략하고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議長 유시춘

예, 그렇게 하시죠.

우선 이사님들 앞에 ‘연도별 지상파 방송사 총수입 및 1인당 매출액 현황’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이영한 이사님 등 몇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 사이에 수신료정상화추진단에서 방송사별 연도별 총수입 현황 네 방송사 비교와 지상파 방송사별 연도별 종사자 수, 그리고 1인당 매출액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왜 그때 이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냐면, 증원의 합리적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을 보면 EBS와 A사의 지상파 방송사별 직원 1인당 매출액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장을 보면 연도별 종사자 수가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 첫 페이지에 보면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숫자인가.’ 할 정도로 EBS와 A사의 격차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다시 돌려 말하자면, ‘EBS 직원들이 그 정도로 정말 중노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외주제작 비율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외주제작 비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A사와 저희가.

그래서 현재 이 3가지 자료가 향후에 수신료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텐데요. 언젠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이 중요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통계를 냈고요. 어느 분이 보더라도 가장 확실하게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그래프로 다시 자료를 만들라고 제가 실무진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센터장이 말씀하신 이 증원계획에 동의합니다.

이 증원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이사회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그리고 또 이사회라고 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런 중요사안을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도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사님들 의견을 주시면 오늘 이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예,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이영한

추가로 보내주신 1인당 매출액 잘 봤습니다.

우리 EBS가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규모로 하면 거의 40% 이상을 확장을 했어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뤘고,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5천억 시대를 달성할 텐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 인력구조를 다시 한 번 쪽 점검하는 것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매출액을 보니까 지금 공영방송 A사, B사가 1인당 3억대, 그다음에 C사 민영방송이 7억5천, 그리고 우리 EBS는 딱 그 중간에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경영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한 번 세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사장이 지금 한 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한 2명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다시 한 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직제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 議長 유시춘

또 의견 말씀 주시죠.

김진 이사님이 여기에 굉장히 전문가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 말씀해 주시죠.

○ 理事 김진

저도 지금 여기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비정형 인력의 사용이 일상화돼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원 늘리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요. 공사에 여쭙고 싶은 것은, 별첨으로 주신 자료 (p)27에도 보면 인력 운영계획을 쪽 밝히셨는데, 거기에서 비정형 인력 규모 감소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 하시고, 특히 구체적으로 미래전략사업 수행 직무와 상시지속 직무 등은 정규직 정원으로 전환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향후 5년 채용인원안을 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퇴직 대체와 전략사업 추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p)27에서 밝힌 미래전략사업 수행 직무나 상시지속직무 등의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하신다는 계획이 2021년 8월 현재 나와 있는 ‘언제쯤 몇 명’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까지 그런 계획을 내오겠다.’ 이런 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말씀하세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늘 김진 이사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이사님들 궁금해 하시고 강조하시는 부분이라 이 비규정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5년 치에 대한 계획을 짰 것에 기본 전제조건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시성 국고 지원사업이라든지 특교사업들이 확정을 나를 전제하고 사실 짰 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I기반의 에듀테크부에 지원되는 특교예산들이 지원이 된다 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그러한 계획들이 지속화가 컨펌이 되는 순간 저희는 그쪽 인력들은 당장이라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협의를 저희가 매번 교육부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지금 정확하게 ‘언제 몇 날 몇 시에 전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저희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의 상시화 노력 들을 끊임없이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즉시 그 사업들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러니까 ‘타임스케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원칙과 방향은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議長 유시춘

예, 선동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선동규

저도 이번에 안전에 올라와 있는 이 직제규정 바꾸는 것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다른 이사님들도 다 동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이후에 1인당 매출액, 각 사 1인당 매출액 이 자료를 제가 집에서 받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1인당 매출액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구나.’ 하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1인당 매출액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인당 생산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C사의 경우를 보면 A사나 B사의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어요, 1인당 매출액이.

그렇다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EBS 직원들이 그야말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은 논점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C사 직원들은 이 정도 노동 강도 라면 뭐라고 할까요,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중노동, ‘중노동×2’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C사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어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인지.

○議長 유시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설명 가능합니다.

○議長 유시춘

예, 말씀해 보십시오.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지금 C사가 작년도 매출 중에 크게,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 '00000'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00000'가 C사 광고량의 절대량을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00000' 시청률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는데 내용 자체는 막장에 가까운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에 있어서는 사실 이익 추구를 최대 우선순위로 두고 같은 자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00000'라는 프로그램으로 드라마를 론칭했을 때 시청률과 이익은 담보할 수 있지만 공영성은 그만큼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C사 같은 경우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시청률과 이익 극대화를 위한 목표점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같은 자원 투입 대비 효과가 더 높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 공영성과 자체 재원 확보의 이 2가지 숙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영성 테두리 내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1인당 매출액이 저희가 투여한 자원 대비보다 A·B사에 비해서는 높게 나온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공영방송으로서 자체 재원을 동시에 병행 추구해야 되는 조직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理事 선동규

예, 알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B사라는 회사를 다닐 때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많이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영방송이라는 게 주인이 시청자고 국민이라고 흔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는 회사잖아요. 주인이 없는 회사.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이다 보니까 참 엉망이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A사, B사 주인 없는 회사, C사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흑여라도, 흑시라도, 흑시라도 주인 없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아주 원초적인 어떤 허점, 폐해, 그런 것으로 인한 생산성 이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범위, 그 가능성은 없느냐.

물론 EBS가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행여라도, 행여라도 그런 면은 없는 건지 살펴봐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서 실제 운영 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김양은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김양은

직제개편 인원은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 운영들을 개선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계셔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건데, 제가 만날 이사회 때 사실은 말씀드리는데, (p)3에 주셨던 1인당 매출액 현황 이런 도표들을 볼 때, 저희가 나중에 어쨌든 인력과 관련해서든 수신료 정국에 들어가서도 뭔가 데이터를 낼 텐데, 데이터를 조금만 더 엄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p)3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년, 2005년, 2010년, 2015, 2020년 이렇게 5년 단위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상파 방송들이 2015년 이후에 굴곡들이 좀 많잖아요. 경영 악화나, 특히 EBS도 그렇고.

그런데 그 데이터는 보이지 않고 2020년에 5.3억원으로 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처럼 내부적 상황을 다 아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가능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제시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고,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데이터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정상수치를 볼 수는 없다 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당장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연도만 놓고 바라보는 데이터로는 나중에 저희가 뭔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데이터들이 요 시기에 각각의 방송사들에 변동사항이 있었다라는 조금 더 세밀한 데이터를 놓으시고 대처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말씀하십시오.

예, 박강호 이사님 말씀하세요.

○ 理事 박강호

저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이 안건 하나만 봐도 ‘정말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범적이고 바른생활만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원 비율을 A사 수준 정도로 해서 올리는 김에 한 15% 정도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50명 이렇게 올리는지 나는 이해가..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죄송합니다. 간이 작아서..

○ 理事 박강호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전반적인 것에 동의합니다.

1인당 매출액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EBS의 역할이나 책무나 중장기 계획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생각하면 저는 사실 ‘결원 비율을 높게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예, 동의합니다.

○ 議長 유시춘

박강호 이사님 말씀대로 50명 증원이 앞으로 100명 증원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세요.

○ 理事 장옥님

제가 별지로 주신 1인당 매출액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인당이라는 게 정규직 현원을 기준으로 한 건지.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맞습니다.

○ 理事 장옥님

500명 정도? 600명 정도?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앞쪽에 보시면 587명으로 지금 보고를, 예.

○ 理事 장옥님

예, 600명 좀 안 되는. 그 수치로 나눈 건가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理事 장옥님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저기로 나눈 것이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理事 장옥님

그건 외주제작 비율이라든가 또 프리랜서PD 같은 것을 EBS는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현원이 적은 대신에 프리랜서PD 등을 한시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그런 외부인력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직원들이 중노동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프리랜서를 정원 외 인력으로 쓰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규직 인원이 풍부한 것도 좋지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위대한 수업> 같은 경우, 이런 한시적인 제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든가 외주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사용해서 정원에서 감당 못 하는 업무 분량을 분담시키고 적절하게 공백을 메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인당 매출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EBS 직원들이 중노동을 한다거나 ‘너무 혹사를 한다.’ 이런 말에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C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A사를 다닐 때, A사는 늘 외부로부터 ‘방만한 경영이다.’ ‘억대 연봉 인력이 너무 많다.’ 이런 공격을 받았고, 직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C사와 비교하면서 C사는 저희도 인정을 했어요. 인력의 효율성이랄까, 그런 면에서 ‘C사는 회사에서 숨을 데가 없다.’ 예를 들어 커피 마시면서 환담도 하고 약간의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C사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게 안 된다. 숨을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C사 사례에 대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저희 월급을 받는 직원들로서는 안됐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여담으로 하는 얘기는 합니다. 암튼 지금 정원 50명 정도를 그러면 5년 동안 한꺼번에 늘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 외 T/O는 말씀 그대로 서류상의 리미트를 올리는 것이고요. 실제 그 안에서 실제 신규인력을 뽑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원을 올려놓고 신규인력을 전혀 못 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기 여러 이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성장을 위해서, 또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로 마케팅해서 따오고 론칭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미트를 올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理事 장옥님

점진적으로 점점,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상황을 보면서.

○ 理事 장옥님

‘실질적인 인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理事 장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또 의견 주십시오.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저희가 이사회 전에 이미 많은 자료들을 다 공유를 했고요, 지난 간담회 때도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지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러면 지금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도 될까요?

[“예.” 하는 理事들 있음]

○議長 유시춘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충원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이 이사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써야 됩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고 그 원칙과 방향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그리고 장옥님 이사께서 프리PD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EBS가 그 어디보다도 프리PD, 프리랜서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고비 고비마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리PD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EBS에서 정말 상시적이고 영속적이고 변함없이 써야 되는 직군인데 그 고용 형태를 달리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고용원칙과도 어긋납니다.

아까 김진 이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향성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50명이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사회 의결안건 제489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議事棒 三打))

〈 報告案件 〉

【 第2021-11號 : 2020事業年度 經營評價 改善 勸告事項 實踐計劃 】

○ 議長 유시춘

다음 안건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021-11호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실천계획」 을 상정합니다.

○ 理事 박강호

이사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 理事 박강호

이 사안이야말로 이제 차기 이사분들이 follow-up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총괄 보고 내지는 총론적 성격의 내용만 간단히 보고를 듣고 차기 이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정책센터장님, 박강호 이사님 제안 들으셨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議長 유시춘

저도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p)10입니다.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은 경영부문 3건, 방송부문 6건, 교육부문 3건, 기술부문 4건 이렇게 총 16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각 부문별 담당자인 정책기획센터장, 콘텐츠기획센터장, 학교교육본부장, 융합기술본부장이 연이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질의를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영한 理事 退室》

○ 議長 유시춘

예, 그렇게 진행하시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우선 제가 먼저 경영부문 개선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1입니다.

경영부문 첫 번째 개선 권고사항은, ‘공사의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요즘 강조되고 있는 ESG를 포함한 윤리나 공정, 친환경 등의 공적 기관 책무에 대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나 방향성들을 설정하라.’ 이런 권고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ESG라는 부분이 EBS에 아직 본격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바탕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올해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ESG 기반의 연구조사를 대내외의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고, 이 과정 속에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저희의 방향성들을 스스로 설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것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세우는 방송기본계획의 기본 주축을 이렇게 설정한 ESG 기반의 가치체계에 두고 올해는 내년도 방송기본계획 중에 저희가 현재 산재해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Social EBS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한 카테고리로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 실천방안들을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아울러 ESG라는 부분이 대내외에 콘텐츠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내 프로그램 공모 시에도 ESG 관련 주제를 포함시켜서 ESG 관련 콘텐츠를 통해 ESG가 EBS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의 경영전략들이 ‘단기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계획으로는 저희가 올해 수신료 베이스기는 하지만 중기 공적책무 계획안을 각 부별로 받아서 외부 전문가와 시청자들의 설문조사까지 포함해서 나침반의 골격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추후 중장기의 이런 경영전략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 (p)12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BS 내에 이를 감당할 연구소가 사실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책센터 주관으로 EBS R&D 연구반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연구인력을 모아서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반에서 저희가 설정한 중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시청자 설문조사, 또 대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숙성시키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할지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현재 2회의 미팅을 마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이 미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에 따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요구도 있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한 중기 공적 방향성에 바탕을 둔 필요인력 산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완성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매년 방송기본계획들을 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시점마다 중장기에 인력운용 계획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성장지원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과관리 체계와 관련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첫발을 떤 본 신수중사업 관리계획을 올해는 총 9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 핵심과업, 매출, 이익 3가지 측면의 과제들을 설정한 후 종합적으로 저희가 월별, 분기별 모니터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가서 이 부분들을 종합평가하여서 최종 실적에 대한 합산점수를 낸 후 등급별 사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보상은 개별보상이 아니라 사업 단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이 보상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사업들의 운영비용들을 일부 저희가 플러스시켜서 그 사업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지향성과 가치들을 대외에 적극 소통하라는 권고셨는데요. 이러한 개선 권고사항 받아들이고 저희가 정책기획부를 중심으로 해서 EBS 전사홍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홍보·정책대협·수신료추진단·뉴스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이 부서들이 월 1회 모여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것들을 공유한 후 각 부에서 실행해야 될 홍보계획들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수신료 공적책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모여서 고민하고 지금 각 부에서 정해진 바대로 유기적인 홍보들을 시작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글로벌 석학에 대한 전사 홍보를 유기적으로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석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벌어진 교육 격차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메운다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여기에 맞는 홍보들을 각 부서에서 개발하고 다시 모여서 이

를 논의한 후 실 행하는 이런 유기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국민과의 소통, 또 대외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EBS 국민정책 제안제를 실현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총 150여 건의 국민들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는 눈에 띄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심사하고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10편을 선정해서 이 부분을 시상 및 정책에 반영하는 시금석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강화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성들이 옳은지, 또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사특집 관련해서는 1,000명 대상의 시청자 조사를 이미 조사를 마쳐서 이 수신료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기획부의 정책 세팅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이런 니즈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언론학회와 3개월에 걸쳐서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과 지역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연구계획이 완성이 되었고, 이것들이 론칭이 되면 저희들의 방향성을 소통시키고 국민들이 EBS에 요구하는 니즈들을 파악함으로써 저희가 함께 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수신료 조정이라든지 중기 공적책무 확대 방안 등에 관해서 국회라든지 방통위에서 경영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과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도 적극 따름으로써 공사가 보다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기획센터장님이 방송부문 개선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기획센터장 류재호

방송부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부문은 총 6건인데요.

1번 ‘교육지식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카이브 구축 및 검색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각 기능별로 분산된 데이터 아카이빙 체계를 통합 환경으로 재편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플랫폼 전략, 채널 간 교차 편성 전략, 시청 타깃별 편성 전략 등 편성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TV는 대상으로 보면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 프로그램, 그리고 2TV는 초등 및 성인 대상, 그리고 PLUS1과 2는 초·중·고 및 성인 대상으로 채널별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채널별 주 시청층 및 시청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더 정교한 교차편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하고 MZ세대를 위한 연령별 시청층을 포함한 1TV 편성전략을 수립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시된 것처럼 저희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하트가 빛나는 순간>이라든가 <공상가들>, 그리고 <인투 더 가든>, <페이크>, <최요비 공방> 등이 여기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 理事 退室》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는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저희가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추가적인 비율 증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교육뉴스 파급력 확대 방안 모색 요망’입니다.

TV뉴스와 웹 뉴스 상호 보완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터 운영으로 뉴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세한 기사는 TV뉴스 외 웹에 자세한 기사를 실음으로써 뭔가 이것을 TV뉴스의 시간적인 제약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사라든가 학부모, 대학생들을 시민기자로 활용하는 교육 전문 인터넷 신문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유아어린이 콘텐츠에 대한 R&D 기능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유아어린이특임국, 편성기획부, 글로벌애니부 등 유아어린이 콘텐츠 유관 부서가 담당자를 중심으로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CBeebies라든가 CBBC 등 BBC 유아채널과 캐나다 TV Ontario, 또 HNK ETV 같은 해외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린이 프로그램 정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도 저희가 신규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방송부문 워크플로우 개선 필요합니다.

현재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에서 사업 홍보 플랫폼 등 유관 부서와 사전협업 및 확대가 있습니다.

《김진 理事 再入室》

현재 그래서 저희 팽TV&브랜드스튜디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콘사부라든가 홍보부, 그리고 인터넷모바일사업부 등 사전 협업을 확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 <인투 더 가든>, 그리고 <문해력 유치원>과 <문해력 수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6번 ‘차년도 계획 수립 시 각 부서별 성과 목표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방송기본계획을 통해서 신년업무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중 회의를 통해서 각각의 부서에 부여된 지표들을 성과를 측정하고, 그리고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기획부 같은 경우는 주 시청시간대 및 일일 시청률 20% 상승이라는 어떤 정량적 목표와 그리고 국내외 콘텐츠 R&D 실적, 그리고 킬러 콘텐츠 개발 등이 있습니다.

북&렉처 같은 경우는 단행본 도서 발간, 매출액, 그리고 클래스e 구독자 활성화, 단행본 베스트셀러 개발 실적, 클래스e 스타강사 발굴 실적, 글로벌 석학 제작 실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유시춘

다음 교육 부문 하십니까?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교육 부문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개선사항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학교교육본부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 역할이 ‘수능, 그리고 관련 방송과 교재 편찬으로 두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미래지향적인가?’ 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R&D 기능을 강화해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선계획을 앞으로 현재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에 걸맞는 교육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흐름과 기존 교육체제 시스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변화된 교육 현실을 대응할 계획입니다.

주요한 저희의 목표는 여전히 교육 격차 해소이며, 또 이를 위해서 다양하게 학습지원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D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R&D는 크게 내부 직원들의 자기개발 연수와 부별 연구 프로젝트 등을 구성해서 전사적 R&D 연구반과 별개로 R&D 역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EBS 내부의 부서별 각 프로젝트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또 교육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교육부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교육 유관기관이 들어와 있는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R&D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p)19입니다.

두 번째 주신 의견으로는 ‘만족도 중심의 성과를 넘어서 실증적 효과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학교교육본부에서 제작하는 EBS의 학습 콘텐츠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셨고, 또 ‘사교육 프로그램에 비해서 어떤 강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개선 권고사항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개선계획으로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연구진을 외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했던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FGI나 로그 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적·질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이나 문해력 활용률 같은 일종에 사회적 가치, 그리고 교육적 가치와 같은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효과성 부분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검증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전략적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개선 권고사항 세 번째 사항은 (p)20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설계 기능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일방향 학습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개선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고교 사이트의 경우에는 ‘DANCHOO’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 자동추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고도화하고, 두 번째로 이 DANCHOO를 지금 현재 고등학교만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AI 학습진단시스템을 초등 사이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격차 완화와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과목에서 특별히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수학과 영어 중에서 영어는 AI 팽톡 서비스를 구축해서 향후 이런 팽톡에서 확보된 개인학습이력 및 빅데이터 자료를 축적해서 이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효과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유시춘

다음 기술부문 보고해 주십시오.

○融合技術本部長 ○○○○

기술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부문은 총 4개의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R&D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TV·라디오로 대표되는 지상파 플랫폼은 중장기적인 R&D를 통해 단계적 시설 전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사이트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니즈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메인 사이트는 방대한 콘텐츠로 인한 아카이빙 자료의 구조화가 병행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 역시 중장기적인 R&D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EBS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 방송 플랫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등 해외 석학 관련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플랫폼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다양한 ODA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지식 민주주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EBS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수집과 이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AI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는데, 빅데이터 수집을 분석해서 콘텐츠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정보를 처리하고 콘텐츠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AI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AI 팽톡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AI 기반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기부 수탁과제인 지능적 미디어 속성 추출 및 공유 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를 분석하여 메타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국산 AI기술 개발에 기여 및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는데, 현재는 참여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나, 향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인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된 사례는 가상화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로 도입 효용성에 대한 입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콘텐츠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적용에 대한 플랫폼 운영 담당부서와 콘텐츠 보호 적용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4개 부문에 걸친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실천계획을 지금 들었습니다.

이사님들, 의견 주십시오.

○ 理事 장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말씀하세요.

○ 理事 장옥님

(p)13의 경영부문 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세 번째 ‘대외 소통 및 투명성 강화 방안’에 13쪽에 보면 개선 계획에 ‘공사 가치체계 기반의 홍보 및 대외 소통 강화’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요즘은 하도 모든 게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 진입 부분인가, 정확히 제가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방송사마다 광고탑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로.

그게 EBS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관리를 하시나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그때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홍보부를 통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 베이스의 홍보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일단 광고 효과가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한 광고판을 허용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황에 대한 내용 정도만 체크를 하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했던 상황입니다. 그 홍보에 대한, 그 광고판에 대한 프로세스는 광고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책정해서 거기에다가 콜을 주면 그렇게 교체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광고 효과 및 각 지자체의 상이한 입장 때문에 그때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은 못 한 상황입니다.

○ 理事 장옥님

그래요.

일단은 지금 현재 EBS를 홍보하는 그런 게 있기는 현재도 있는 거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있습니다. 사인들이 있습니다.

○ 理事 장옥님

그런데 물론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저기하는 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생

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EBS의 이미지랄까, 우리가 단순히 교육방송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고 저 자신도 굉장히 EBS가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간혹 보이는 그런 광고판 같은 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세워진 그런 것 그대로 있고, 또 어찌 보면 방치하고 있다 라는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많이 내놓고 있고, 또 EBS 이미지가 일반 시청자들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친숙하고 그런데, 그런 것과는 괴리가 느껴지더라고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체크 다시 하겠습니다.

○ 理事 장옥님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위대한 수업> 이런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사실. 이것을 TV라든가 인터넷으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 하나 어디 수도권에 이목을 많이 받는 곳에 새로 꾸며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니면 또 그게 아니더라도 EBS의 대표적인 일반 시청자들이 많이 즐기는 콘텐츠에 대한 거라든가 해서,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늘 똑같은 게 있으면 별로 그게 그건가 보다 하지만, 바뀌고 그럴 때마다 또 주목도가 달라지거든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理事 장옥님

그래서 그런 것도 여력이 되시면 활용해서, 이왕 있는 것이고, 그거 하나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게 올드패션의 광고판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방금 <그레이트 마인즈>는 저희가 광화문은 동아일보 사옥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고 강남구 두 군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야탑 광고가 아닌 전광판 광고로 가장 서울에서 주목도가 높은 곳에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理事 장옥님

예. 감사합니다.

○理事 선동규

그러면 그것은 동아일보 광고 전광판을 빌려 쓰는 건가요?

○社長 김명중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에 맡기면 그 대행사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副社長 김유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공유를 바로 이사님들께 해 드리겠습니다.

시안도 나와 있고 동영상도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理事 장옥님

그 동영상은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광화문이라든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언제 시작하나요?

○副社長 김유열

9월 1일부터.

○理事 선동규

그런데 전광판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오래 전부터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볼까 말까 고민 고민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전광판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 볼까 하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독자적으로 설치하려면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거기 운영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의 건물,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무슨 큰 건물 옥상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건물주한테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런데 아까 장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네거리나 강남역이나 영등포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다가 EBS 독자적으로 전광판 하나 딱 설치를 하면 EBS 콘텐츠에 대한 홍보도 계속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EBS에 대한 주목, 관심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어쩔까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그 돈이 엄청 들지요?

돈이 별로 안 들면 그런 것도 한번, EBS 오프라인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볼직 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아까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 시대에 저희가 열심히 달려서 말씀하신 것 그 중간 중간에,

○ 理事 선동규

뭐라고, 뭐라고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그 재원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理事 선동규

돈이 많으면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죠.

○ 副社長 김유열

A신문사, B신문사 거기 그게 사업이에요.

그쪽 A신문사하고 B신문사 사업이어서, 자기네들 플랫폼을 갖고 콘텐츠를 외부에서 돈 받고 하는데, 플랫폼 자체를 설치하려면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 理事 선동규

그래서 자꾸 시끄럽게 해야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종대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문종대

개선계획 마련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16개나 되다 보니까 단기과제, 중장기과제가 혼재되어 있어서, 나중에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진행하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그다음에 내부 역량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한 다면 사실 이 16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내에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議長 유시춘

예, 정동섭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정동섭

상당히, 저희 김양은 이사님하고 1월부터인가요, 5월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개선계획이 잘 돼 있는데, 저희 경영평가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6쪽 편성 기획부에 보면 ‘콘텐츠 기획, 제작 과정에서 사업·홍보·플랫폼 등 유관부서와의 사전 협업 지속 및 확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경영평가위원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선계획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한번 답변하고 그렇게 안 하지는 않겠지만 유념히 보셔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이런 작업이 계속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17쪽에도 ‘프로그램 메타데이터 입력 및 관리 강화’ 이것도 그때 우리가 이 2개 다 맥락이 ‘굉장히 EBS가 프로그램은 잘 만드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시민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다 평가를 덜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2가지는 꼭 한번 사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프로그램 만드는 것 그 이후에 좀 더 판매라든가 이런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社長 김명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한 메타데이터 작업은 하고 있고요, 주문하신 대로 이 분야는 꼭 실천해 나가도록 해당 부서장들하고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김양은 이사님 말씀하세요.

○ 理事 김양은

저도 경영평가에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작성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어쨌든 금년 안에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금년 안에 실천될 수 있는 일도 있고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일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금년에 실천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 중기적 과제 자르셔서 2021년 안에 꼭 필요하고 선급한 과제부터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먼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경평이 3년이나 이사회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건이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경평이 개선계획에도 보면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메타검색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기술 기반이거든요.

그때도 앞에, 오늘도 소요 전망과 필요인력 상정 얘기하실 때 다루고 계시기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나 2022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수주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을 수주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기 계신 인력들도 기술에 대한 마인드나 감각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 중에서 우선 배치해야 될 인력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IT 기반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인력들이 요구될 때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꼭 인력 충원이나 이런 수급 계획에서 정규인력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공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고요, EBS는. 저희의 어려움도 너무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결국은 해야 될 것들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저희에게 기대하는 이용자들에게 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 EBS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좋은 콘텐츠를 찾지 못해서 못 보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금년, 내년까지 ‘어? EBS 갔더니 하나만 검색했는데 나머지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나에게 소개가 돼서 보여져서 또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어려운 일이고 방대한 일이지만 차근차근 계획하셔서 꼭 이것은 마무리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의견 있으십니까?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작은 것 하나 보태며 원한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p)15에 보면 ‘교육뉴스의 과급력 확대 방안 모색’인데요.

저도 가끔 교육뉴스를 봅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일어나는 교육적인 여러 현상이나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동적으로만 따라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교육부의 어떤 홍보파트 같은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교육과 문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므로,’ 우리 지금 지상파도 그러고 문화뉴스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공격적으로 문화뉴스의 지평을 넓혀서 많이 해 보면 좋겠다.’ 그게 청소년들에게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넓히고요.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봤더니 교육뉴스부가 결코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닌데 좀 공격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교육부의 어떤 전달자, 교육부 뉴스의 전달자를 넘어서 ‘청소년의 감각과 눈높이를 살펴서 거기에 맞는 문화뉴스를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2021-12호 「2020사업연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실천계획」은 원안대로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 第2021-13號 : 2021年 가을 EBS 編成 調整 現況 】

○ 議長 유시춘

다음 안건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021-13호 「2021년 가을 EBS 편성 조정 현황」을 상정하겠습니다.

콘텐츠기획센터장,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2021년 가을 편성 조정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p2의 봄 편성 성과 분석입니다.

EBS의 시청률 개요인데요, 전체 시간대와 주 시청시간대 추이입니다.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는 주 시청시간대 1.26에서 1.41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편 전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청률은 0.46에서 0.52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개편 전 대비해서는 약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p)3을 보시면 월별 시청률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주 시청시간대의 2020년 시청률입니다.

월별 시청률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올해 주 시간대의 시청률입니다.

올해 1월하고 2월에 주 시청시간대가 1.66에서 1.5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의 주 요인은 <세계테마기행>과 <한국기행>의 시청률이 이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계테마기행> 같은 경우는 1, 2월에 4% 이상 시청률을 기록한 게 약 11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 시청시간대와 전체 시청시간대를 보면 전년 대비 공히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p)4 보시면 주요 채널 시간대 가구 시청률 추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자료에 있는 그 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議長 유시춘

현재 (p)28입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p)28, 예.

그리고 위에는 그래프이고, 밑에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EBS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 약 13%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E사가 약 6.6%, 그리고 F사이 13.1%, 그리고 G사, H사 등이 조금씩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채널들은 하락을 했구요.

그리고 2020년 가을 대비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E사와 F사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E사 같은 경우 0000라든가 아니면 F사 '0000' 이런 프로그램들의 영향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1년 가을 편성 조정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29입니다.

환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식 환경의 변화, 그리고 비대면 교육이 가져온 교육 격차 심화,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제작 환경 도래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대응방향은 다양한 강의 콘텐츠 강화로 '시민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그리고 '수준별, 영역별 교육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파일럿 및 실감형 콘텐츠 개발로 포스트 TV 시대를 대비하겠다.'

그래서 EBS 제2의 도약을 위한 콘텐츠 대혁신과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미션입니다.

편성 조정 주요 세부 내용입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된 프로그램인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을 한 자리에 모으는 고품격 강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이 월요일부터 매주 금요일까지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첫 편에는 하버드대 교수로 미 국방부 차관 및 하버드 케네디행정대학원장인 조지 프 나이 교수가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라는 주제로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여섯 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옥스퍼드대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진화의 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각 분야, AI 딥러닝의 창시자 요슈아 벤지오라든가 유발 히라리, 마이클 샌델, 그리고 다니엘 바렌보임 같은 각 분야의 석학들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로 지식한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해소 콘텐츠를 신설했습니다.

문해력 성장 실험 리얼리티 <문해력 유치원>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저희 <다큐프라임-당신의 문해력> 이후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데요.

서울대 연구팀과 유아 문해력 발달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출판을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해력 강화 프로젝트 두 번째로 <문해력 수업>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유치원>이 끝난 뒤에 <문해력 수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소년 및 20~3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교육 콘텐츠를 신설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드라마 <하트가 빛나는 순간>을 13부작으로 신설해서 디지털 성폭력, 가톡방 왕따, 가짜 뉴스 등 실제 접할 수 있는 문제의 사실적인 해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경제 교육 프로그램 <EBR 주니어 경제학>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라든가 콜라주 같은 친근한 영상장치를 활용해서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교육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교육 대기획>을 신설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교육시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포스트 코로나-미래 교육의 길을 묻다(3부작)>과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교육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교육양극화(5부작)>, 그리고 <대학>,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의 경쟁력을 파악해 보는 <교과서 혁명>, 그리고 학교 폭력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학교폭력(3부작)>이 해당 프로그램입니다.

사회 현상과 환경을 고찰한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2022년,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대한민국 아동 인권과 안전의 현주소를 고찰해 보는 <아동인권(5부작)>, 그리고 혁신이라는 문제를 권력의 문제로 접근한 <강제혁신>, 그리고 MZ세대를 분석한 <M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한국여성사-100년 전 여성에게 묻다>, 그리고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을 해외 사례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공정이란 무엇인가(3부작)>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사회상을 다룬 <사회 통찰 다큐멘터리>, 현재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난망하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는 <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는가>, 현재 도시의 본질을 새롭게 분석하고 더 나은 도시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시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도시예찬>, 게임에 관한 <게임, 그 자체>, 그리고 <다이어트 혁명> 등을 편성했습니다.

(p)32입니다.

사회 현상과 환경을 고찰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찰하는 <생태&환경 다큐멘터리>입니다.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속에서 대멸종의 위협에 처해있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방식을 모색하는 환경 다큐멘터리 <여섯 번째 대멸종>을 5부작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에 의지해 살아가는 생물과 자연을 다룬 <죽림(2부작)>, 그리고 제주도 바다와 인간의 공존을 보여주는 <탐라국의 해저>,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바꿔놓은 세상을 고찰하는 <연애기계>, 그리고 <가족 탄생의 비밀>, 그리고 생물 진화의 원동력이자 인류에게 위협적인 기생생물과 바이러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해 보는 <기생충 시즌2(3부작)>을 편성했습니다.

(p)33입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어린이 콘텐츠입니다.

유아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학습 콘텐츠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야기를 재연 드라마로 제작한 <그리스 로마 신화-올림포스의 별>과 그리고 아이들의 예술 감수성을 키워주는 <예술아 놀자2>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 제고를 유도하는 <행복한 거북이 학교>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니메이션들을 저희가 대거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새로운 시즌들 <고고다이나믹 공룡탐험대>,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그 다음에 <꼬마버스 타요> 등 새 시즌과 <추피와 친구들>, 그리고 <블루이>, 그리고 <아기상어 올리와 윌리엄>, <못말리는 어린 양 손> 등 새로운 애니메이션들을 편성했습니다.

(p)34입니다.

핵심IP와 화제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포맷을 실험할 수 있는 파일럿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작과 그리고 외주제작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이를 위해서 편성기획부 내에 기존 맡고 있는 업무 플러스 파일럿제작팀을 가동해서 새로운 파일럿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TV와 웹/모바일을 아우르는 미래형 핵심 콘텐츠입니다.

이것은 현재 방송제작본부의 미래콘텐츠기획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로 채식을 주제로 한 요리 서바이벌 <인투 더 가든>, 그리고 <페이크>, 사이언스 XR <공상가들>을 신설했습니다.

실감형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입니다.

AR·VR 연계 어린이 교육 콘텐츠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무빙툰 형식으로 VR 연계 제작한 <EBS 스토리북>, 그리고 AR 연계 콘텐츠로 <봉구야 말해줘3>를 신설하고요, 빅뱅, 지구, 은하, 블랙홀 등을 XR 기술로 시각화해서 시청자들에게 우주체험을 제공하는 <유니버스>를 10부작으로 제작 중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p)35부터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 理事 문종대

제가 간단하게, 저는 ‘역시 다큐의 EBS다.’ 너무 기획 잘 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만 기획돼 있어서 저로서는 참 반갑기 그지없고요.
아마 지금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이 되지 않을까.
EBS를 새롭게 더 고품격의 EBS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에서 보니까 월요일, 금요일 EBS 1TV에서 23시 35분~23시 55분 돼 있고요. 2TV 월요일부터 금요일 22시~22시 20분 돼 있는데, 2TV는 재방인 거죠?
그러니까 1TV에서 월요일 방송했던 그다음 날 2TV에서 월요일 방송했던 것을 재방하나요?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재방송입니다.

○ 理事 문종대

하루 늦게 그러면 편성되는 건가요?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 理事 문종대

저는 이런 것들이 광고가 잘 돼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23시 35분은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상당히 늦은 시간이라서 40~50대, 특히 40대 이상들이 주 시청자일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엘리트 계층들이고.
그래서 그다음 날 2TV에서 어떻게 재방되는지, 특히 또 다른 재방 계획이 있으면, 낮 시간에 재방 계획이 있으면 그런 재방 계획들도 함께 홍보가 잘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아직 기사가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시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여론들을 보니까 방송시간이, 이 아이템의 획기적인 점에 비해서는 방송시간이 너무 늦다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11시 35분이든가요, 꽤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편성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넷플릭스에서 시청 행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전 6시와 밤 자정시간대에 다큐멘터리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가 되게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자발적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라든가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밤 11시 35분을 운행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하면 다른 조치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김양은 이사님.

○ 理事 김양은

저도 앞에 이사님들하고 이사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넷플릭스를 보려고 튜 사람이 보는 시간대와 저희 채널을 보려고 튜는 시간대가 동일하게 데이터 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제가 OTT를 사용해 본 경험도 그렇고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이 보고 싶어서 자발적 그 시간에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편성된 시간에 봐야 되는 건데,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 재방이 3시 몇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과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층이 이 시간에 누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본방이 그 시간에 없더라도 재방이라도 노출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채널 2에서 하지만 또 그것을 찾아서 보기도 그럴 것 같아서 초기에는 어쨌든 많이 운영해 보시고 조정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고생 많이 하

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간단하게 우선 하나만 눈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p)33에 보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신설이 있는데요, 가제가 ‘행복한 거북이 학교’거든요.

물론 거북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선에서 볼 때 거북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생각하면 장애나 특수학급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저도 지금 제가 언뜻 든 생각이라서 가능하시면 혹시 오해나 스테레오 타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제목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마 고민하셔서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선택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혹시 나중에, 아무래도 민감한 대상들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내지는 가능하시면 다른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p)35 같은 경우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중장기 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실 때 생애주기형, 연령별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저희 경쟁에서도 유아와 어린이든 이 대상에 대한 고려에 대한 R&D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요구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아어린이, 유아어린이, 유아, 유아, 어린이, 유아, 유아어린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아나 어린이도, 어린이라기보다는 용어적으로 대상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기해 주시는 게 교육방송에서는 더 적합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시 함께 보고자 하는 부모님, 추천한 부모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지금 소개하신 거지만 앞으로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도 좀 더 유아와 어린이 대상에게는 부모에게 Parenting을 고려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연령이나 대상이나 안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EBS다운 콘텐츠로 훨씬 더 이용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레이트 마인즈>는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운행을 하고, 그리고 그 저기를 봐서 다른 시간대에 묶음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행복한 거북이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칫 그런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목은,

○ 放送製作本部長 남선숙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제작본부장 남선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거북이 학교>는 지금 이제 막 기획이 돼서 방송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름을 <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가제이고요.

○理事 김양은

알겠습니다.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그리고 말씀하신 ‘대상층에서 연령대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가 한 페이지짜리 프로그램 제작에는 연령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는데, 향후에 저희가 이런 보고를 한다든가 여기에도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가급적 연령대를 넣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理事 장옥님

<그레이트 마인즈>, 지금 계속 다른 이사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편성시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25분 정도, 하루 25분이죠?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20분입니다.

○理事 장옥님

20분이고, 한 분의 강의가 여섯 번?

○議長 유시춘

다섯 번.

○理事 장옥님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사람마다 다른가요?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그것은 기준은 다섯 편인데 일정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송되는 조지프 나이 교수 같은 경우는 여섯 편.

○理事 장옥님

그분은 여섯 편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그래서 세 편에서 여섯 편,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섯 편이 많습니다.

○ 理事 장옥님

알.금.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

○ 理事 장옥님

월요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지금 2TV에서 재방을 토요일 10시에 한꺼번에 짹 묶음 편성으로 하신 것은 좋은데, 1TV에서도 주말에 파격적으로, 이것 굉장히 공도 들이고 비용도 많이 들인 건데 한번 이럴 때 파격적으로 1TV 저녁시간에..

제가 <세계테마기행>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새 재방이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파격적으로 묶음편성으로 해서 진짜 EBS를 좋아하고 그래도 지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시청자들이 한번 느긋하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議長 유시춘

편성부장께서 지금 여러 이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기시고요.

‘이 프로그램이 가장 소구력을 가진 계층이 주로 보는 시간대가 언제인가.’ 이런 것 섬세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리고 저는 사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2030 미래세대들이 많이 봐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어쨌든 아마 50대가 제일 많이 볼 텐데요.

그리고 1번 주자인 조지프 나이 교수의 이번 주제도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라는 매우 흥미 있는 주제입니다.

또 마침 한국의 선거 정국과도 연계되어서 한번 경청할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사님들께서 제안하신 소구력을 가진 계층과 시간과의 연관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좀 더 친절하고 섬세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알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그럼 더 없으시면 의결할까요?

[“예.” 하는 理事들 있음]

그러면 보고안건 제2021-13호 「2021년 가을 EBS 편성 조정 현황」 은 원안대로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 第2021-14號 : 8月 主要業務 推進 實績 및 計劃 】

○ 議長 유시춘

다음 안건 제2021-14호 「2021년 8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인데요,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議事棒 三打))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2021년 8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p)43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다큐프라임-예술의 쓸모>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방송됐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액 협찬으로 편당 1억원 정도 들여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새롭고 신선한 접근을 통해서 반향이 좋습니다.

협찬처의 반응뿐만 아니라 서울무용영화제, 서울세계무용축제 등에서 다큐멘터리 상영 요청과 무용 재연 요청 등이 오고 있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듀나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가 학교본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초·중학은 국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멘토링 서비스는 고교생 대상의 서비스입니다.

고교생 대상의 멘토링 서비스는 총 2억3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고1·2 1,200명, 고3 약 50명 정도의 멘토 1명당 학생 20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사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AI교육을 위해서 교재 개발이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5종이 개발 완료됐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93편에 약 3억5천만원 정도의 콘텐츠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AI학습용 데이터 공급 사업이 스마트사업센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으로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막바지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렀고 약 4억원 정도의 계약 총액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성인문해교육 : 소망의 나무>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액 협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육 중 초급단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을 디지털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보다 시니어 그룹에서 초급 문해력 증진에 도움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총 10억 규모로 이루어지고, 올해 여기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80편 외에 올해 10월 말경 추가 20편이 제작돼서 올해 한 100편 정도의 콘텐츠가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번 사항입니다.

현재 EIDF2021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가 자유롭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한적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의견 주십시오.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EIDF 방송시간과 그다음 현재 일산 백석역 옆에 있는 메가박스 벨라시타에서 금토일 상영을 하고 있고요.

이사님들 관람하실 수도 있고요. 백석역까지 오기 힘들시면 방송시간에, 저희가 메일로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理事들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해도 될까요?

[理事들 “예.”]

그러면 이사회 보고안건 제2021-14호 「8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원안대로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閉會 : 16時 49分)

V. 閉 會

○ 議長 유시춘

이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12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事棒 三打))

수고하셨습니다.

《散 會》